

고도 전문화 시대의 언어 인식과 교육적 대응

민병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I. 사회 변화와 언어 인식
- II. 고도 전문화 시대 언어 문제의 성격
- III. 전문 분야별 직무와 언어 인식 문제
- IV. 사회적 소통과 언어 인식 문제
- V. 언어 인식 제고를 위한 국어 교육의 과제

I. 사회 변화와 언어 인식

이 글은 고도로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 담화의 전문화에 따른 언어 문제와 언어 인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교육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언어 인식’에 관한 담론이 언어 교육, 특히 문법 교육을 중심으로, 그 자체의 맥락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것에 비추어 보면, ‘고도 전문화 시대’라는 설정은 다양한 직업과 학문 분야를 망라하면서 국어교육의 기여와 역할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국어 교육의 본질적 사명 중 하나가 국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수렴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보면 새로운 것은 없지만, 이러한 논의는 문법 교육은 물론 국어 교육, 나아가서 교과 교육 전반에 대한 새로운 기틀 마련이라는 문제의식을 함의한다. 교과나 영역은 그것이 지속되어 온 역사에 따라 존립의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편될 수 있고 또 그러해야 한다. 최근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하는 논의에서도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는 사회적 변화를 국

어 교육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그로 인한 교육적 요구를 어떻게 수용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혁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화두로서의 의미가 있다.¹ 일차적으로는 문법 교육의 역할 확대를 통한 자기 혁신 측면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주로 언어 사용의 문제를 다루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등 각 영역의 재구성, 그리고 국어 교과와 타 교과와의 관계 재정립, 나아가 초·중등 교육 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 대학 교육, 성인 교육 등 국어 교육 층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다문화·다언어 환경에서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의 위상 정립 등 국어 교육의 위상과 지형 재정립이라는 거시적 기획의 한 부분이라는 점이다.

주제와 관련하여 우선 살펴야 할 몇 가지 논점이 있다. 우선 ‘고도 전문화 시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하나는 직업 또는 직무의 측면이다. 현대 사회는 소위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직업이 다양화되고 그만큼 전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직업 생활에서 요구되는 직무의 전문성을 전제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언어 사용 또는 의사소통 능력의 특수성 또는 전문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화된 역량은 전근대 사회나 산업 사회와는 다른 수준에서 직무 수행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사회적 소통의 측면이다. 모든 개인이 전문화된 영역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소통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문화된 사회에서는 전문적인 담론이 형성되기 마련이고 이는 비전문가인 개인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통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적 억압이나 차별, 그로 인한 권익의 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

1 한국화법학회에서도 2008년 9월 “전문 분야의 화법”을 주제로 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법정 커뮤니케이션, 방송직의 화법, 의학 면담, 학습 듣기·말하기 등이 주제로 다루어진 바 있는데, 언어 인식이나 국어 교육 전반의 재설계 논의로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화법 및 화법 교육 연구에서도 화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언어 인식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논의의 초점이다.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은 아니지만 ‘언어 인식’의 개념도 문제가 된다. ‘언어 인식’이란 ‘인간의 삶에서 언어의 본질과 언어의 역할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과 의식적인 인식’이다(James && Garret, 1992). 가장 보편적인 정의로 보이는데, 기존의 논의만 살펴보아도 언어 인식은 ‘언어학적 인식, 심리학적 인식, 담화 인식, 의사소통적 인식, 사회언어학적 인식, 전략적 인식’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Garvie, 1990). 이러한 다양한 차원들은 ‘언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구조주의적 정의에 따르면 언어는 언어 그 자체 즉 맥락과 분리된 체계로서 대개 문장 단위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언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언어 사용의 맥락을 복원하고 담화와 텍스트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식의 대상인 언어는 ‘체계’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인식’의 개념도 논의의 대상이다. 언어 인식 논의에서는 언어 인식(language awareness, LA)은 명시적·의식적 지식이고, 언어에 대한 지식(knowledge about language, KAL)은 암시적·무의식적 지식으로 보는 견해(Richmond, 1990; Stainton, 1992; cf. van Lier, 1996)가 보편적이라고 하는데(van Essen, 2010), 의식적인 지식과 무의식적인 지식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언어 지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정의되든 언어 인식에 대한 교육의 두 가지 차원, 즉 언어 인식 자체의 제고 및 언어 인식에 기반을 둔 언어 사용 능력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을 기반으로 하여 언어 인식 교육은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교육적 대응’이라는 표현도 문제적이다. 우선 학교 수준 측면에서 전 학교급 및 성인 교육까지 망라할 수 있고, 교육의 내용과 주체도 국어과 교육에서 접근할 것인지, 타 교과나 타 학문 분야에서 접근할 것인지, 학제적으로 접근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궁극적인 지향점은 학제적 접근일 것이다. 다

만 여기에서는 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그런데 국어 교육적 대응에서도 학문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다를 것이다.

이제 고도 전문화 시대에 제기되는 언어 문제의 성격을 고찰하고(2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언어 인식의 두 측면을 살펴본 후(3, 4장), 언어 인식 제고를 위한 국어 교육의 과제를 제안하는 것으로(5장)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고도 전문화 시대 언어 문제의 성격

고도 전문화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산업의 중심이 1, 2차 산업에서 3, 4차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루어진 산업의 고도화에서 유발되는 문제이다. 의료, 정보, 교육, 법률, 금융 등 지식 집약적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정보 통신 기술 발달에 따른 지식 정보화의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식 기반 사회²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생산량이 많고 유통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그만큼 많아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드는 일에 비해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이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 통신 기술의 고도화가 산업과 직업의 전문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의 고도화는 정보와 기술의 집약을 가속화함으로써 고도 산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게 되고 그에 따라 노동의 이동과 분화를 촉진하게 된다.

2 이러한 사회 질서를 가리키는 용어로 후기 산업 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정보화 시대(information age), 신경제(new economy), 지식 경제(knowledge economy) 등 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Giddens, 2009/2011: 774).

이러한 현상은 국가 경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노동력의 이동과 전 지구적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기술과 정보의 집약은 개인의 역할을 전문화시키면서도 그러한 개인들을 조직과 네트워크로 결속함으로써 경쟁적 환경에 대응하게 만든다. 전문성과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개인들이 집단과 조직의 구성원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무 수행의 전문성 문제 등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고 외적으로 다른 조직, 기관, 국가와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문제, 경쟁과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갈등 문제 등이 수반된다.

그 가운데 우리의 관심사는 언어 문제인데 언어 인식 담론의 출발점이 그러하듯이 기본적으로는 외국어 사용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소통 할 수 있는 공용어, 특히 모어가 아닌 언어를 소통의 수단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통 과정에서 정보의 양과 질이 왜곡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다. EU와 같이 국가 연합의 형태로 결속된 나라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어 교육과 언어 인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오히려 영어만 알고 다른 외국어를 모르는 상황이 문제가 되어 언어 교육에서 언어 인식 개념이 대두되었다고 하는데(Donmall, 1985) 어쨌든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들이 접촉하는 환경에서 언어 인식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언어 인식의 문제는 외국어의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사회 내에서도 전문화된 집단이나 개인 간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전문화된 직업을 가진 개인이 수행해야 할 직무와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문식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전문화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하여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문식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Beaugrande(1997: 330)는 정보의 폭발이 특수 목적 언어(language for special purposes, LSP)와 용어법(terminology)의 역할을 증대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 세대 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례 없이 많은 전문가를 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오늘날 한 분야 안에서 제기되고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셋째,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일반 대중이 긴급하게 알아야 할 주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넷째, 많은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및 실험 비용을 전문화된 담화와 관련지어 쓰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보의 폭발로 인하여 주로 의사소통의 위기인 지식의 위기를 촉발함으로써 지구적 불평등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전문화된 담화를 양산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지식의 불평등과 의사소통의 위기가 고도 전문화 사회 언어 문제의 본질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의 문제를 유발하는데, 하나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 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언어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전문성을 기능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그러한 지향에 함의되어 있는 지식의 편중과 의사소통의 장애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전문 분야별 직무와 언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III. 전문 분야별 직무와 언어 인식 문제

1. 직업 분류와 전문 분야

한국 표준 직업 분류(통계청, 2007)에 따르면, 한국인의 직업은 1,206가지이다. 표 1과 같이 대분류 항목은 모두 10가지인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군의 직업이 445가지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 분류 단계별 항목 수(통계청, 2007: 2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1. 관리자	5	15	24	77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	41	153	445
3. 사무 종사자	4	9	26	57
4. 서비스 종사자	4	10	33	73
5. 판매 종사자	3	4	13	38
6. 농림어업 속련 종사자	3	5	12	29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	20	73	201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31	65	235
9. 단순노무 종사자	6	12	24	48
A. 군인	1	2	3	3
계	52	149	426	1,206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분류에 따른 직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통계청, 2007: 19).

표준 직업 분류와 직능 수준과의 관계

위와 같은 4개의 직무 능력 수준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표준 직업 분류상의 10개 대분류 항목 중 9개 항목에 적용되었으며, 대분류 A. 군인 항목은 조사의 현

실성을 감안하여 직능 수준과 무관하게 분류하였다.

- | | |
|----------------------|-------------------------|
| 1. 관리자 | : 제4직능 수준 혹은 제3직능 수준 필요 |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제4직능 수준 혹은 제3직능 수준 필요 |
| 3. 사무 종사자 | : 제2직능 수준 필요 |
| 4. 서비스 종사자 | : 제2직능 수준 필요 |
| 5. 판매 종사자 | : 제2직능 수준 필요 |
| 6.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 : 제2직능 수준 필요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제2직능 수준 필요 |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제2직능 수준 필요 |
| 9. 단순노무 종사자 | : 제1직능 수준 필요 |
| A. 군인 | : 직능 수준과 무관 |

그러나 이러한 직능 수준이 실제 종사자의 학력 수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로 하는 최소 직능 수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1, 2직군의 경우 제4직능 수준 혹은 제3직능 수준을 최소 직능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수준의 직능 수준을 상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흥미로운 점은 각 직능 수준에 대한 기술에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부분을 밑줄 친 부분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8-19).

직업 대분류와 직능 수준

국제 표준 직업 분류(ESCO)에서 정의한 직능 수준(Skill Level)은 정규 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적인 직업 훈련과 직업 경험을 통하여서도 얻게 된다. 따라서 분류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은 정규 교육 수준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 업무의 수행 능력이다. 이러한 기본 개념에 의하여 설정된 분류 체계는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4개의 직능 수준으로 구분하고, 직무 능력이 정규 교육(또는 직업 훈련)을 통하여

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국제 표준 교육 분류(ISCED-97)상의 교육과정 수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제1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때로는 육체적인 힘을 요하는 과업을 수행한다. 간단한 수작업 공구나 진공청소기, 전기 장비들을 이용한다. 과일을 따거나 채소를 뽑고 단순 조립을 수행하며, 손을 이용하여 물건을 나르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은 최소한의 문자 이해와 수리적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간단한 직무 교육으로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 제1직능 수준의 일부 직업에서는 초등교육이나 기초적인 교육(ISCED 수준 1)을 필요로 한다.

(2) 제2직능 수준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과 정확한 계산 능력,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보통 중등 이상의 교육과정의 정규 교육 이수(ISCED 수준 2, 수준 3)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업 훈련이나 직업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부 전문적인 직무 훈련과 실습 과정이 요구되며, 훈련 실습 기간은 정규 훈련을 보완하거나 정규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할 수 있다. 운송 수단의 운전이나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일부의 직업은 중등학교 졸업 후 교육(ISCED 수준 4)이나 직업 교육 기관에서의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요구할 수도 있다.

(3) 제3직능 수준

복잡한 과업과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할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수리 계산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 훈련 및 실습 과정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정규 훈련 과정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시험원과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는 의료 관련 분류나 스포츠 관련 직업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을 마치

고 1~3년 정도의 추가적인 교육과정(ISCED 수준 5b) 정도의 정규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필요로 한다.

(4) 제4직능 수준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창의력 및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일정한 보충적 직무 훈련 및 실습이 요구된다. 또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경험을 습득하여 이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분석과 문제 해결,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진료가 대표적인 직무 분야이다. 일반적으로 4년 또는 그 이상 계속하여 학사, 석사나 그와 동등한 학위가 수여되는 교육 수준(ISCED 수준 5a 혹은 그 이상)의 정규 교육 또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 직능 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이나 언어 인식 수준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고도 전문화 시대 직무에 따른 언어 인식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위의 대분류보다는 좀 더 세부적인 분류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1, 2 직군을 중·소 분류까지 확장해서 살펴보자.

표 2. 제1, 2 직군 중·소 분류(통계청, 2007: 31-6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 단체 임원
		112 기업고위임원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20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132 보험 및 금융 관리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관리자
		134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 관리자
		135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39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4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49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152 고객서비스 관리자
		153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 과학 전문가
		213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험원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22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223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4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234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전기·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6 안전관리 및 검사원
		237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1 의료진료 전문가
		242 약사 및 한약사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및 관련직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사 및 의료기사
		246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247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48 종교관련 종사자
		251 대학 교수 및 강사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2 학교 교사

	253 유치원 교사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4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59 기타 교육 전문가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61 법률 전문가
	262 행정 전문가
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3 상품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274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8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28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283 연극·영화 및 영상 전문가
	284 화가·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289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위 분류에 따르면 전문화 정도가 높은 직업군은 대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관리자 군과 전문가(및 관련 종사자) 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중분류까지만 상세화하더라도 가짓수가 13개에 이른다. 이 글에서는 ‘전문화’라는 개념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제1직군은 대분류 수준에서만 논의하고, 제2직군을 중심으로 중분류 수준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전문화된 직무의 특성에 따른 언어 인식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위 직업 분류를 다음과 같이 재분류하고자 한다.³

- 관리자
- 과학·정보통신·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3 이러한 재분류는 전문화된 직업군에 따른 언어 인식의 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의 차이를 개괄적으로 살피기 위한 것으로, 분류 기준 적용의 엄밀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 직군별 언어 인식 문제

각각의 직군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언어 인식 문제를 살펴보자.

1) 관리자

관리자 군은 주로 조직이나 기관의 최고경영자(CEO)나 관리자로서 조직이나 기관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이 직군에서는 주로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관련 업무를 파악하여 지시를 내리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뿐 아니라, 타 기관이나 조직과의 대외 교섭 활동이 많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직면하는 언어 문제는 많은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인 분석과 종합, 합리적 의사 결정, 설득과 협상, 구성원을 이끄는 리더십, 조직 내 의사소통의 활성화 등이 될 것이다.

박경현 외(2006: 51-54)에서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언어 행위의 규범을 다음 여섯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 (1) 리더는 덕을 바탕으로 말하여야 한다.
- (2) 리더는 말하기 전에 먼저 구성원의 말을 들어야 한다.
- (3) 리더는 말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 (4) 리더는 진실하게 말하여야 한다.
- (5) 리더는 구성원을 복돋워 주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6) 리더는 품위 있게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고경영자의 지위에 어울리는 의사소통 방법을 다음 네 가지로 간추리고 있다(67-69).

첫째, 최고경영자는 신중한 사람으로 보이게 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고경영자는 말을 할 때 자신이 결정권자이며, 그러한 결정에 책임을 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이게 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적인 공감이 생기도록 말하는 것이 좋다.

넷째, 최고경영자는 말을 할 때 ‘침묵’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은 화법의 측면에서 관리자 군의 언어 인식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리자는 조직이나 기관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언어 인식보다는 그러한 직무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언어적 감수성을 더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군의 직무와 언어 문제를 하위 직군별로 간단하게 살펴보자.

2) 과학·정보통신·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이 분야는 과학·정보통신·공학의 속성상 주로 의사소통의 맥락보다는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소통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해당 분야의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과 처방, 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한 탐구와 설명이 언어 인식의 주요 문제이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진행한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결과에 따르면,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전문 용어는 3)항의 보건 분야를 포함하여 약 40만 단어로, 분야별로는 적게는 수천 단어에서 많게는 수만 단어에 이른다. 전문가 집단 내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용어의 표준화는 필수적인 작업인데, 이러한 표준화 작업에 대한 요구는 과학 기술 분야로부터 시작되어,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전문 용어

의 표준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이현주·조동성, 2011).

3)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이 직군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보건 분야는 주로 질병 현상의 진단과 처방 및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여 전문화된 분야로서, 건강과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 내에서 언어 사용 특히 정확한 용어의 선택과 사용이 중시되고, 환자나 보호자와 같은 비전문가와의 소통에서 진단과 처방 및 치료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위한 언어 능력이 중시된다. 사회복지나 종교 분야는 공통적으로 사회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경청과 상담의 과정이 의사소통의 핵심을 이루며, 특히 종교 분야는 교리의 전달을 위한 교육이나 설교를 위한 표현 능력이 중요시된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의학, 치의학, 약학 분야에서 표준화된 전문 용어만 해도 약 8만 어에 이르는데, 전문 용어로 표상되는 관련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은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언어 인식의 문제일 것이다. 임상 분야의 경우에는 의료 의사소통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진료 과정이나 상황에 따른 다양한 면담 기법을 활용할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시된다. 진료 과정에 따라서는 면담의 시작과 종결의 과정에서 병력 청취, 임상 추론, 환자 교육 등을 위한 의사소통 기법을, 상황에 따라서는 소아와 청소년 면담, 노인 면담과 장애인 면담, 가정 폭력, 성문제 면담, 행동변화 상담 중 환자 코칭, 나쁜 소식 전하기, 동의서 받기, 의료 오류 공개하기, 팀 의사소통 등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중에서 팀 의사소통은 특히 의료진 내부의 소통에 관한 문제로서, 자문 요청과 의뢰, 사례 보고(프레젠테이션)를 위한 소통 기법을 필요로 한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2012: 212-216).

4)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이 직군은 수업이나 교재 분석, 교수·학습 설계, 강의, 지식의 협력적 구

성을 위한 교수·학습, 학생 및 학부모 상담, 동료 간의 팀워크, 행정 및 문서 처리, ICT 활용 등 다양한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되고, 교수의 경우는 이 외에도 학술적 담론의 이해, 표현과 논문 지도를 위한 대인의사소통 등도 중심적인 언어 문제라 할 수 있다.

교육적 의사소통에 관해서는 ‘교사화법’, ‘교수 화법’, ‘교실 의사소통’ 등의 명칭으로 화법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가 소개되었거나 외(이주행 외, 2003; 임칠성 외, 2004; 이창덕 외, 2010; Cooper & Simonds, 2003/2010, Mottet, *et al.*, 2006 등), 수학, 과학 등 소위 내용 교과에서도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교수·학습에 접근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이종희·김선희, 2003; Wellington & Osborne, 2001/2010). 이 직군에서는 주로 지식의 구성과 소통을 위한 언어 인식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법률 및 행정 전문직

이 직군은 주로 법률의 해석, 적용, 입안 등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법률가는 주로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논증과 설득, 중재와 조정 등 해석과 적용에 초점을 두며, 행정가는 법률의 시행, 문제 상황의 진단, 원인의 분석, 대안의 제안, 법률과 제도의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법률 및 행정 행위가 주로 문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고서나 공문서 등에 대한 독해와 구성 능력이 중시되며 최근에는 면대면 상황에서의 소통 비중이 더 중시되고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되는 정보도 많다는 점에서 매체 인식과 활용 능력도 중시되고 있다.

최근 공직 적성 검사나 법학 전문 대학원 입학 전형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 추론 및 논리 추론 검사 등의 시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률 및 행정 전문직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직무에서 언어의 도구적 활용과 언어적 감수성을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도입이나 법학 전문 대학원 설치 등과 관련하여 법조계에서도 법률적 판단의 합리성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 논증의 이론과 실제를 탐색하고 법률 언어의 인식 문

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김성룡, 2006).

6)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이 직군은 기업, 은행, 보험사 등의 인사 및 재무, 상품 개발, 고객 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세부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언어 문제는 다르겠지만 업무 또는 프로젝트의 기획, 실행, 평가 및 보고 등에 요구되는 기획안,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이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중간 관리자로서 조직 내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직·수평적 의사소통을 주도하고 타 조직 및 기관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Hunerberg와 Geile(2012)은 사업(business)에서 언어의 문제를 적합성(adequacy)과 효율성(efficiency)의 두 가지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다국적 회사들이 통제된 언어(controlled language, CL)를 사용하거나⁴ 다양한 직무에 투입할 언어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직원들의 언어 능력을 계발하는 등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통제된 언어’의 도입은 다국적 기업에서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하나의 방안일 뿐이지만, 이러한 사례는 세계화된 경제 체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내몰린 기업이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언어 문제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7)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이 직군은 대체로 창의성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저술 활동에 종사하는 작가군은 높은 수준의 텍스트 구성 능력이 요구되고, 큐레이터 군은 해당 분야의 소양을 바탕으로 한 분류적 사고와 비평 능력이 요구되며, 비언어 예술가 군은 언어로 일상화된 세계를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사고력이 요구되

4 IBM의 쉬운 영어(Easy English), Siemens의 문서독일어(Siemens Dokumentations-Deutsch)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 스포츠 관련 전문가는 지도력, 판단력, 설명력 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관리자 및 전문가 군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언어 문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는 엄격한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며 동일 직업군 내에서도 직업에 따라 직무의 차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둑든 유사한 직업군 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핵심적인 직무 유형이 있을 것이고 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언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은 가능하다. 직업군에 따라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문화된 용어 체계와 의미 소통 관습이 있다는 것은 각각의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훈련해야 할 언어 문제가 있음을 간취하게 해 준다. 공통적인 사항은 전문 분야 내부의 소통을 위한 언어 문제와 비전문가와의 소통을 위한 언어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부분적으로는 해설자가 그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해 주는데 이들에게는 특별히 언어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인식과 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이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자나 전문가는 스스로 해설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언어적 감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IV. 사회적 소통과 언어 인식 문제

고도 전문화 시대 언어 문제에서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전문가 집단의 담화를 비전문가, 즉 일반 시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일반 시민이 전문가 집단의 담화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는 언어적·제도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와 난해한 장문으로 채워져 있는데, 법조인들은 그러한 용어와 장문의 문체가 지시 관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가 의미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것이 이 분야의 텍스트 관습에 대한 오랜 접촉과 훈련의 결과일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문으로 문식성을 획득한 사람이 한문을 읽고 쓰는 데 더 친숙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매년 배출하는 법조인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담화의 전문화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권력 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매개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의료, 약학 등 다른 전문 분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비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전문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제를 간명한 문제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바꾼다면 어느 정도 얼마나 쉽게 바꿔야 하는가? 이것은 전문가가 집단의 뜻인가, 일반 시민의 뜻인가, 아니면 해당 분야 담화 전문가의 뜻인가? 그리고 이러한 실행의 결과는 전문적 담화를 대체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적 담화와 일반적 담화의 매개적 형태인가? 이는 고도 전문화 시대의 소통과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점검해야 할 기본적인 질문들이다.

과학 분야에서 비전문가와 일상적 언어로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Moriarty(1996/2008)에 제시된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책에서는 과학적 사고와 과학 언어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과학적 글쓰기에서 독자의 수준에 따라 내용의 선정, 조직, 표현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특히 어휘에 대한 이해 정도의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다음 두 글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69-70).

펄프 공장 폐수의 유독성

독자: 전문가(환경공학)

최근 십 년간 약 30종류 이상의 복합적 유기체가 펄프 공정의 유독성에 대한 원인 요소로 규정되었다. 가스 색증분석(gas chromatography)을 사용한 화학적

분석 절차는 폐수 속에 있는 유독물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에 주입된 유독성은 측정된 유독물의 농도의 단위 총합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여러 시냇물을 분석하고 연구해 본 결과 가스 색증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유독성과 무지개 송어의 생물학적 치사량으로부터 얻어진 바이러스 사 이에서 확실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펄프공장 폐기물의 유독성

독자: 일반인

펄프 공장은 종이와 그 밖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나무를 사용한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 불가능한 물질은 하수구를 통해 바깥으로 버린다. 그리고 하수구의 물은 호수나 강 그리고 바다에 이르게 된다. 호수와 강은 산업폐수에 의해 오염된 물이 된다.

최근 10년 동안 물고기에게 해로운 30가지가 넘는 유기체 합성물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유독성 합성물은 가스 색증분석에 의해 규명되었다. 가스 색증분석은 액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합성물을 분리하고, 규명하며, 기록하는 실험 도구이다. 이런 도구를 사용하여 과학자들은 시냇물 속에 어떤 유독성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

폐수 속에 있는 유독성 화학물이 알려지자 과학자들은 그런 화학물들이 고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즉 이런 실험을 통해 치사율에 이르는 생물학적 정량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실험의 결과 펄프 공장의 폐수에서 나오는 유독성의 함량은 무지개 송어가 죽을 수 있는 치사량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두 글을 비교해 보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는 많은 정보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데 비해, 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는 펄프 공장의 종이 생산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 사용된 용어를 더 상세히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 집단 내

에서는 전문 용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비해, 비전문가와의 소통에서는 일상적인 용어를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 가능성은 증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이는 이 직군의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언어 인식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의료 분야에서는 특히 의료진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최근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 상황 중에서 ‘나쁜 소식 전하기’의 의사소통 모형 중 하나인 SPIKES 모형을 살펴보자(177-180).

1단계: 준비(SETTING UP the interview)

2단계: 환자의 이해 정도 평가(Assessing the patient's PERCEPTION)

3단계: 환자의 초대 얻기(Obtain the patient's INVITATION)

4단계: 환자에게 지식과 정보 주기(Giv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the patient)

5단계: 환자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탐색(Addressing the patient's EMOTIONS with EMPATHIC responses and EXPLORATION)

6단계: 전략과 요약(STRATEGY and SUMMARY)

이 중에서 4단계 ‘환자에게 지식과 정보 주기’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178-179).

나쁜 소식을 전할 것이라는 경고는 상황이 밝혀진 다음에 나타날 충격을 완화 한다. “안됐지만 말씀 드릴 소식이 안 좋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의학적 사실을 전달할 때는 환자의 이해 정도에 맞춰서 어휘를 선택하고, ‘전이’ 대신에 ‘펴졌다’, ‘생검’ 대신에 ‘조직검사’와 같이 의학용어를 쉽게 풀어 써야 한다. 지나치게 무뚝뚝하고 거친 의사의 말(예: “아주 안 좋은 암에 걸려서 즉

각 치료받지 않으면 살기 힘듭니다.”)은 환자의 소외감과 분노를 일으킨다. 정보량은 잘게 쪼개서(보통 한 번에 세 가지 정도) 전달하고 정기적으로 환자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 일방적인 강의식 정보 제공은 피하고 환자와 보조를 맞추어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예후가 아주 좋지 않을 때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와 같은 말은 피한다. 이런 말은 환자에게 증상완화와 통증조절 같은 다른 중요한 치료 목표가 있다는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모형은 전문가인 의료진이 일반인인 환자와 의사소통 할 때 갖추어야 할 언어 인식의 한 가지 사례라 할 수 있다. 어휘의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의 입장과 처지, 화용적 맥락을 고려한 정보의 구성과 표현의 제반 측면에 대한 감수성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법률 및 행정 분야에서도 어려운 한자어 중심의 용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문장을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법령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행정 관련 정보를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은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비전문가가 이러한 전문 집단의 담화와 텍스트에 접근하는 권리는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는 인지적·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안고 있다.

텍스트 과학에서는 특수 목적 언어(language for special purpose, LSP) 또는 특수 목적 담화(discourse for special purpose, DSP) 연구를 언어적·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Beaugrande(1997)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비판적 담화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오늘날 전문가와 비전문가, 중심과 주변의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각각의 전문화된 분야 내에서 그리고 이 분야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채널이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습적인 LSP의 사용과 DSP를 위한 용어법을 철저하게 비판하지 않으

면 안 되며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대안적인 사용법을 기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텍스트 과학의 비판적 담화 분석 방법이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에 존재하는 접근 장벽을 허무는 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텍스트 과학 연구가 전문적 담화의 설명을 좀 더 서사적이고 논증적인 관점으로 바꾸어 진술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331).

결국 전문적 담화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담화에 대한 비판적 언어 인식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비판적 언어 인식의 과정은 비판적 담화 분석의 과정과 관련지을 수 있는데, 이는 텍스트, 상호작용, 사회적 맥락 등 담화의 요소들에 대해서 텍스트를 기술, 해석, 설명하는 과정이다(Fairclough, 2001). Fairclough는 각 과정에 따른 비판적 질문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전문적 담화에 대한 비판적 언어 인식은 이러한 인식적 질문을 자원으로 활용할 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Beaugrande(1997: 343-344)에서는 피아제(J. Piaget)의 “The Child and Reality(1976)라는 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피아제의 설명적인 담화를 좀 더 서사적이고 논증적인 담화로 재구성하는 전략을 사용하여 피아제의 담화적 추론에서 주요한 진행(move)을 열일곱 가지로 정리하여 풀어 씀으로써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보여준 바 있다(고영근 외, 2001: 442).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 담화 분석에 기반을 둔 비판적 언어 인식은 전문적인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확보되기 어려울 것이다. 언어 인식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학습에 의해서 확보된다는 경험적 증거를 참조한다면, 전문적 담화의 건강한 사회적 소통을 위해서는 비판적 담화 분석 연습이 담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다.

V. 언어 인식 제고를 위한 국어 교육의 과제

고도 전문화 시대 언어 인식의 문제를 기능적 언어 인식과 비판적 언어 인식의 두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어 교육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언어 기술의 이론적 기반을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언어 인식은 단순히 언어 형식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의 결과, 절차, 맥락 전반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사용자가 일정한 상황적, 사회적 맥락에 참여하면서 기능적으로 언어 형식을 활용하는 양상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 기능의 제반 측면을 언어 형식의 규칙 체계로 환원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겠지만 일정한 맥락 속에서 언어 형식에 수반될 수 있는 의미들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구조주의 문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교육용 문법 수준에서 이러한 대안적 문법 기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 분야별로 주로 요구되는 의사소통 기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언어 인식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기술하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비판적 언어 인식을 위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둘째,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법 또는 국어 지식의 내용을 언어 기능 영역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어 현상에 대한 이해 그 자체도 중요한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이 될 수 있겠지만, 언어활동 과의 관련 속에서 문법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법 기술의 관점을 구조주의를 넘어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전문 분야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언어 인식의 요소를 필요 한 수준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국어과 선택과목이나 대학의 국어 관련 교양과목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나 대학의 일반 교양과목에 반영할 수 있는 언어 인식의 내용 요소를 마련하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

셋째, 전문적 담화에 대한 사회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컨설턴트나 전문 분야 담화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 분야 담화를 시민 사회에서 좀 더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재구성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기상 캐스터, 의학 전문 기자, 과학 전문 기자 등이 전문 분야의 담론을 이해하기 쉽게 일반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처럼,⁵ 다양한 전문 분야를 비전문가에게 해설하고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의학, 과학, 법률 용어를 정비한다든지, 법조문이나 공문서를 가독성 높게 재구성하거나 관련 텍스트를 생산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지식의 편중과 그로 인한 의사소통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위키피디아 방식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 것은 고도 전문화 시대 언어 문제의 해결과 언어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http://www.korean.go.kr/09_new/notice/notice_view.jsp).

넷째, 국어 교육에서 담화 분석 및 언어 인식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확대하는 것이다. 언어를 맥락과 분리된 형식으로서만이 아니라 맥락과 결부된 실제로서 다루기 위해서는 언어가 생산되고 수용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인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로서의 언어는 일정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한다. 이는 언어가 사회·문화적 관습과 가치를 반영하면서, 참여자 상호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어가 선의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무관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인간의 주체적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

5 한국전문기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약 300명의 전문기자가 활동하고 있다 (<http://www.kspanews.com/>).

사회가 교육의 장에서 언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김은성, 2005). 그러나 국어 교육이 국어를 매개로 하여 전인(全人)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언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어 교육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그 영역을 전 사회, 전 생애의 범위로 확장해 나가려는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국어 교육을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지 말고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그 지평을 확대해 가야 한다. 박인기(2011)에서도 교과 교육이 생태학적으로 호응해 나가기 위한 진화적 적합성을 추구해 가야 함을 지적한 바 있듯이, 국어과 교육의 미래적 가능성은 국어 교육에 대한 교과 내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구를 수렴하고 개인의 생물학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장을 담보하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고도 전문화 시대 요구되는 국어 교육의 사명은 전문화된 각 분야에서의 기능적 효율성에 대한 추구와 함께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으로서 담화에 접근하는 자유를 구가하는 데 요구되는 언어적 감수성과 비판적 언어 인식 능력을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국어 교육의 영역을 어린이, 청소년으로부터 모든 성인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며, 일상어로 이루어지는 보편적 언어생활뿐만 아니라 전문 분야의 담화로 소통되는 특수한 언어생활에까지 확장하고, 기능적 소통뿐만 아니라 비판적 소통의 영역까지 확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 본 논문은 2013. 2. 28. 투고되었으며, 2013. 3. 5. 심사가 시작되어 2013. 3.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고영근·장경희·이성만·신지연(2001),『한국테스트과학의 제과제』, 역락.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알림 마당 http://www.korean.go.kr/09_new/notice/notice_view.jsp
- 김성룡(2006),『법적 논증의 기초』, 경북대학교 출판부.
- 김은성(2005),『비판적 언어 인식에 대한 연구』,『국어교육학연구』15, pp. 323~355.
- 박경현·이석주·이주행·민현식·이충우·김혜숙·박재현·나은미(2006),『리더와 말말말』, 역락.
- 박인기(2011),『교과의 생태와 교과의 진화: 교과의 개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국어 교과의 진화 조건』, 박인기·김창원·설규주·임희준·권덕원·김재운·이춘식,『교과는 진화하는가』, 지식교양.
- 이용순·주인중·정향진(2002),『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지침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krivet.re.kr/>
- 이종희·김선희(2003),『수학적 의사소통』, 교문사.
- 이주행·박경현·민현식·이경우·이삼형·박수자·권순희(2003),『교사화법의 이론과 실제』, 역락.
- 이창덕·민병곤·박창균·이정우·김주영(2010),『수업을 살리는 교사화법』, 티쳐빌.
- 이현주·조동성(2011),『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한국어의 미학』35, pp. 245~283.
- 임칠성·심영택·원진숙·이창덕(2004),『교사화법 교육』, 집문당.
- 통계청(2007),『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한국 표준 직업 분류』, <http://kostat.go.kr/>
-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2012),『의료커뮤니케이션』, 학지사.
- Beaugrande, R. de (1997). *New foundations for a science of text and discourse: cognition, communication, and the freedom of access to knowledge and society*. N.J.: Ablex Pub. Corp.
- Cooper, P. J. and Simonds, C. J. (2007/2010) / 이창덕·전인숙·이정우·김주영·김지연 역,『교실 의사소통: 효과적인 교실 상호작용을 위한 소통 방법』, 교육과학사.
- Donmall, B. (1985), *Language Awareness. Report to the National Congress on Languages in Education*, London: CILTR.
- Fairclough, N. (2001/2011) / 김지홍 역,『언어와 권력』, 경진.
- Garvie, E. (1990), *Story as Vehicle: Teaching English to Young Children*, Clevedon: Multicultural Matters, Ltd.
- Giddens, A. (2009/2012) / 김미숙·김용학·박길성·송호근·신풍영·유홍준·정성호 역,『현대 사회학(제6판)』, 을유문화사.
- Hünerberg, R. and Geile, A. (2012), *Language awareness as a challenge for business, Language Awareness* 21(1-2), 215~234.
- James, C. and Garret, P. (1992), *Language Awareness in the Classroom*, London: Longman.
- Moriarty, M. (1996/2008) / 정희모·김성수·이재성 역,『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글쓰기』,

- Mottet, T. P., Richmond, V. P., and McCroskey, J. C. (2006), *Handbook of Instructional Communication: Rhetorical and Relational Perspectives*. Boston: Pearson Education.
- Richmond, J. (1990), "What do we mean by knowledge about language?" In: Carter, R. (ed.), *Knowledge about Language and the Curriculum: The LINC Reader*, London: Hodder and Stoughton.
- Stainton, C. (1992), "Language awareness: Genre awareness A focused review of the literature," *Language Awareness* 1(2), pp. 109~121.
- Van Essen, A. (2010), "Language awareness and knowledge about language: a history overview," In: Cenoz, J. and Hornberger, N. H. (eds.),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Education (2nd ed.) 6: Knowledge about Language*. New York: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LLC.
- Van Lier, L. (1996), *Interaction in the language curriculum*, London: Longman.
- Wellington, J. and Osborne, J. (2001/2010) / 임칠성·김종희·전은주·박종원·원진숙·이창덕·심영택·최재혁·박평웅 역, 『과학 교실에서 언어와 문식력』, 교육과학사.
- Weninger, C. and Kan, K. H. -Y. (2012), "(Critical) Language awareness in business communication,"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32, pp. 59~71.

고도 전문화 시대의 언어 인식과 교육적 대응

민병곤

이 논문은 고도로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 담화의 전문화에 따른 언어 문제와 언어 인식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교육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고도 전문화 시대에 제기되는 언어 문제의 성격을 고찰하고(2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언어 인식의 두 측면을 살펴본 후(3, 4장), 언어 인식 제고를 위한 국어 교육의 과제를 제안하는(5장)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필자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전문화된 담화를 양산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지식의 불평등과 의사소통의 위기가 고도 전문화 사회 언어 문제의 본질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언어 인식의 문제를 기능적 언어 인식과 비판적 언어 인식의 두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전자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 개인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언어 인식의 문제이고, 후자는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 인식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필자는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바탕으로 전문 분야를 '관리자, 과학·정보통신·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법률 및 행정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의 일곱으로 나누고 각 직군에서 요구되는 언어 인식의 문제를 기술하고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비판적 언어 인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도 전문화 시대 언어 인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어 교

육의 과제 네 가지를 제기하였다. 첫째, 언어 기술의 이론적 기반을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확장하는 문제, 둘째, 문법 또는 국어 지식의 내용을 언어 기능 영역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것, 셋째, 전문적 담화에 대한 사회적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 분야 담화를 재구성하게 할 것. 넷째, 담화 분석 및 언어 인식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확대할 것.

핵심어 고도 전문화 시대, 언어 인식, 특수 목적 담화, 국어 교육

ABSTRACT

Language Awareness and Educational Tasks in a Highly Specialized Society

Min, Byeong-gon

The present study discusses language awareness and the educational responses to it in a highly specialized society .

For this author, the problem of language awareness arises from both the inequality of knowledge and the crisis of communication that has its origins in an age of information and mass production of specialized discourse. The former is related to communication among specialists and the latter between specialists and non-specialists.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the author classifies the specialized areas into seven categories: management; science, information and engineering; health, social welfare, and religion; education; law and governance; business and finance; and culture, art, and sports. In addition, he describes language awareness through each of these categories and argues that critical language awareness is necessary for communication between specialists and non-specialists.

Finally, he discusses the educational tasks required to resolve problems, such as a more functional approach to language and school grammar, the cultivation of discourse among specialists, the reconstruction of various special discourses for non-specialists, and a more critical approach to discourse analysis and language awareness.

KEYWORDS Highly specialized society, language awareness, language for special purposes, Korean language education